



공 주 시 의 회
Gongju City Council

활짝열린 의회 · 살기좋은 공주

- 2014 공주시의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 연 수 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말라카, 푸트라자야)
- 연수기간 : 2014. 10. 22 ~ 10. 27(4박6일)
- 연 수 자 : 시의원(10) 사무국직원(7)

의회사무국

목 차

I. 연 수 개 요

1. 연수 기간	1
2. 연수 국가	1
3. 연수 인원	1
4. 연수 내용	1
5. 연수 주요일정	2
6. 연수자 명단	3

II. 연수국 현황

1. 싱가포르 현황	4
2. 말레이시아 현황	7

III. 연수 활동 주요내용

1. 소방재난갤러리	10
2. 싱가포르 뉴워터	11
3.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	12
4. 말라카	13
5. 아동복지시설(RACTAR)	14
6. 푸트라자야	15

IV. 연수 후기

16

I . 연수개요

- 우리시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진 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그들이 가진 경쟁력의 근원을 학습하여 향후 우리시의 정책입안에 참고 활용
-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류를 통해 색다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의회의 역할과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

1. 연수기간 : 2014. 10. 22(월) ~ 10. 27(월) [4박 6일]

2. 연 수 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말라카, 푸트라자야)

3. 연수인원 : 17명

4. 연수 내용

○ 기관 공식 방문

- 싱가포르

- 소방재난갤러리 : 싱가포르의 소방 역사와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 견학
- 싱가포르뉴워터 : 물 부족 국가로서 식수난 해결 방법이나 오·폐수, 바닷물 등을 어떻게 처리하여 식수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 및 시설 견학
- 싱가포르도시개발청(URA) : 철저하게 계산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설명과 싱가포르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보고 우리시와 인근도시와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

- 말레이시아

- 말라카(세계문화유산) : 우리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대비점 등 비교 견학
- 아동복지시설(RACTAR) : 시설 관계자로부터 아동복지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20여만원의 후원금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필통 80여개 선물 증정
- 푸트라자야 : 쿠알라룸푸르의 신행정수도로 금융기관과 국가의 주요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신도시이며, 세종시 건설의 모델이 된 푸트라자야 외관 견학

○ 주요 시설 운영실태 비교견학

- 싱가포르 : 주룽새공원, 센토사섬, 리버보트 야경
- 말레이시아 : 켄팅하일랜드

5. 연수 일정

월 일	방문국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요일정 및 연수일정
제1일 10.22 (수)	대한민국 싱가폴	공 주 인 천 싱가폴	차량 KE634 차량	08:30 11:30 14:20 19:30 21:30	•공주출발 •인천공항도착 및 출국수속 •인천공항출발 •창이국제공항도착 •호텔투숙
제2일 10.23 (목)	싱가폴	싱가폴	차량	07:00 10:00 13:00 19:00	•호텔조식후 •공식기관방문(소방재난 갤러리) •연수기관관련견학지(주룽새공원,센토사섬..) •호텔투숙
제3일 10.24 (금)	싱가폴	싱가폴	차량	07:00 09:00 13:00 15:00 19:00	•호텔조식후 •보타닉가든 •공식기관방문(싱가폴시티갤러리, 싱가포르뉴워터) •연수기관관련견학지(머라이언파크...) •호텔투숙

월 일	방문국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요일정 및 연수일정
제4일 10.25 (토)	싱가폴 말레이시아	싱가폴 조호바루 말라카 쿠알라룸푸	차량	07:00 08:30 09:00 13:00 15:00 19:00:	•호텔조식후 •싱가폴-말레이시아국경통과 •말라카로이동(약3시간) •연수기관관련견학지(네델란드거리...) •쿠알라룸푸로이동(약2시간30분) •호텔투숙
제6일 10.26 (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차량 KE672	07:00 09:00 21:00 23:59	•호텔조식후 •공식기관방문(아동복지시설) •연수기관관련견학지(신행정수도푸트라자야 쌍둥이빌딩...) •쿠알라룸푸공항도착및출국수속 •쿠알라룸푸출발
제6일 10.27 (월)	대한민국	인 천 공 주	차량	07:10 11:00	•인천공항도착 •공주시의회도착

6. 연수자 명단

○ 의 원(10명)

연 번	직 위	성 명		비 고
1	의 장	이 해 선	LEE H A E S U N	
2	의회운영위원장	이 종 운	LEE J O N G O U N	
3	행정복지위원장	우 영 길	W O O Y E O N G K I L	
4	산업건설위원장	김 동 일	K I M D O N G I L	
5	의 원	윤 홍 중	Y O O N H O N G C H U N G	
6	“	박 기 영	P A R K K I Y O U N G	
7	“	한 상 규	H A N S A N G G Y U	
8	“	배 찬 식	B A E C H A N S I K	
9	“	박 선 자	S U N J A P A R K	
10	“	김 영 미	K I M Y O U N G M I	

○ 직 원(7명)

연 번	직 위	성 명		비 고
		한글	영문	
1	의정담당	최 위 호	C H O I U I H O	
2	직 원	민 인 숙	M I N I N S O O K	
3	직 원	노 성 자	N O H S R E O N G J A	
4	직 원	이 희 관	L E E H E E G O U N	
5	직 원	이 선 정	L E E S U N J U N G	
6	직 원	김 홍 년	K I M H O N G N Y E M	
7	직 원	최 시 내	C H O I S I N A E	

II. 연수국 현황

【연수국 / 싱가포르】



1. 유래 및 일반현황

'그린 & 크린 시티'로 불리우는 머라이언의 나라 싱가폴은 14세기경에 수마트라 섬의 한 왕자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동

물을 보고 사자로 오인하면서 '싱가푸라(Singa Pura, 사자의 도시)'로 불리워지다가 영국인들에 의해 싱가포르로 발음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있었던 탓에 1832년에는 영국의 해협 식민지였으며,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후 영국 식민지로 환원되었던 싱가폴은 1959년 영국 연방내 자치 정부를 설립했으나,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다가 1965년에야 비로소 독립 공화국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117번째로 유엔에 가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싱가폴의 옛 명칭인 '테마섹(Temasek : 바다의 마을)'에 널리 알려진 전설속의 동물 '머라이언'은 1964년 싱가폴의 상징으로 처음 착안 되어 관광청 공식 문장으로 사용되게 되었으며, 현재 젊은 나라인 싱가폴의 발전과 성장을 상징하기 위해 싱가폴 강 입구에 위용을 뽐내고 있다.

- ◆ 수 도 : 싱가포르(Singapore)
- ◆ 인 구 : 4,425,720명
- ◆ 면 적 : 692.7km²(서울시 605.4km²)
- ◆ 주요도시 : 도시국가
- ◆ 주요민족 : 중국계(77.5%), 말레이계(14.2%), 인도계(7.1%), 기타(1.2%)
- ◆ 주요언어 :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 ◆ 종 교 : 불교(53.3%), 회교(15.3%), 기독교(12.7%), 힌두교(3.7%)

2. 지리

싱가폴은 본섬외에 50여개의 조그마한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 총 면적은 692.7km²다. 북위 1.09-1.29도, 동경 103.38 - 104.06도에 위치하며, 적도로부터 북쪽으로 약 1백37km 떨어져 있다. 이웃 인도네시아와는 동서를 잇는 유명한 해상 루트인 말라카 해협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와는 조호 수로를 잇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항만 도시 국가이다. 싱가포르 본섬의 서남부는 암석지대로 저습지가 많고 동부지역은 모래가 많아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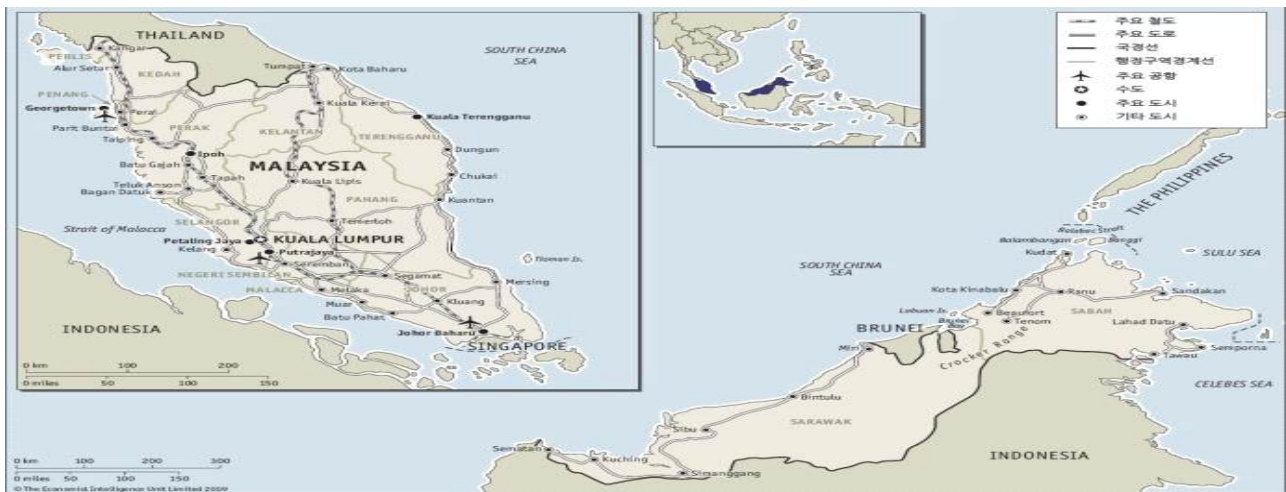
3. 문화

싱가폴은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등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 국가이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자국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는 물론 멀리 포르투갈까지 다양한 문화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인구는 4백 35만명으로 공용어는 영어, 중국어, 타밀어, 말레이어이고, 종교는 불교,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이다. 천혜의 지리적 조건에 힘입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정유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아니라 고무, 주석, 코코넛, 석유, 목재, 쌀, 향료, 커피, 황마 등 각종 산물의 거래시장으로 이 지역의 부를 창조하고 있으며, 관광도 주요산업으로 성장하여 하루 평균 1만4천여명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찾고 있다.

4. 기후

열대 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섭씨 27-28℃로 기온의 변화가 거의 없고 강우량에 따라 다소 변화를 느낄 뿐이다. 연중 상하의 날씨로 11월에서 익년 2월까지 동북 몬순 기후로 우기에 속한다. 우기라고는 하지만 하루에 한 두 번 소나기(스콜)가 오고 나면 곧 날씨가 갠다. 연중 기후는 맑고 고온 다습한 기후이지만 건물 안이나 공공 시설은 에어컨 시설이 완벽해 오히려 얇은 가디건 같은 걸 옷이 필요하다.

【연수국 / 말레이시아】



1. 유래 및 일반현황

아름다운 해변과 크고 작은 섬들과 정글로 뒤덮인 산악 지대와 휴양지가 공존하는 곳인 말레이시아는 15세기 말레이 반도 남부에 말라카 왕국이 세워졌으며, 18세기이후 포르투갈과 네델란드에 의해 점령 되었고, 19세기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 ◆ 수 도 : 쿠알라 룸푸르(Kuala Lumpur)
- ◆ 인 구 : 26,857,600명 (2006년 현재)
- ◆ 위 치 : 말레이반도 및 보르네오섬 북부
- ◆ 기 후 : 고온 다습의 열대성(21℃~34℃)
- ◆ 면 적 : 329,733km² (한반도의 약 1.5배)
- ◆ 주요도시 : 쿠알라 룸푸르(Kuala Lumpur), 페낭(Penang), 조호바루(Johor Bahru), 쿠칭(Kuching), 타키나바루(Kota Kinabalu)
- ◆ 주요민족 : 말레이(61%), 중국계(29%), 인도파키스탄계(9%)
- ◆ 주요언어 :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
- ◆ 종 교 : 회교(국교), 불교, 기독교, 기타

제2차 세계 대전중 일본 군정하에 있다가 종전후 다시 영국보호령 말라야 연방이 되었다. 1963년 영국 식민지였던 동말레이시아의 사라왁과 사바, 싱가포르까지가 독립 연방국 말레이시아로 되었고, 1965년 싱가포르가 분리되어 독립하였다. 예로부터 말레이시아는 동서 문화의 네거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중국, 인도, 이슬람 문화와 동남아시아 고유의 문화가 융화, 공존하면서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어서 들어온 서구 문화도 말레이시아 문화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2. 지리

수도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말레이 반도의 서말레이시아와 보루네오섬 북부의 동말레이시아 등 두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남

아에서도 적도 바로 북단에 위치하여 남쪽으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북쪽으로는 태일란드, 동쪽으로는 필리핀에 인접해 있다.

13개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고, 주민은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가 많고 그밖에 많은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330,434km에 달한다.

3. 사회문화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로 인종뿐만 아니라 종교, 언어 등이 다양하다.

종교는 회교가 국교로 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의 2/3는 회교가 점유하고 있으며 원말레이계는 의무적으로 회교이고 일부 중국계나 인도, 파키스탄 기타 인종은 고유의 종교를 가질 수 있다. 공식언어는 말레이어지만 중국어, 타미르어, 영어도 사용된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으므로 영어의 통용범위가 상당히 넓다.

4. 기후

서말레이시아의 동해안과 동말레이시아는 11~2월, 서말레이시아의 서해안은 8~9월이 우기이다. 기온은 연간 21~32℃로 일 년 내내 우리 나라의 여름 날씨와 같은 기온의 변화가 없고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다. 강수량은 205mm이다. 그러나 고원 리조트지로 가는 사람은 물론, 장거리 버스나 호텔은 냉방이 잘 되어 긴 소매 상의가 필요하다.

Ⅲ. 연수활동 주요내용

1 소방재난 갤러리 방문

□ 방문일 : 2014. 10. 23(목)

□ 내 용

○ 시설개관

- 소방서(Central Fire Station)와 박물관으로 구성
- 방문객에게 민방위 및 재난관련 교육훈련과 체험 참여
-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는 민방위 및 소방관련 물품 등 제작전시
- 관람시간 : 화 ~ 토, 10:00 ~ 17:00 (월요일 휴무)



○ 싱가포르 소방재난 조직체계

- 조직체계 : 전국 15개의 소방서와 24개의 소방파출소 구성
- 출동체계 : 한달 약 80건의 화재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가 접수된 후 소방파출소에서 현장까지 8분 이내에, 구급은 11분 이내에 긴급 출동
- 특 징
 - 도시소방의 특성상 좁은 골목길 등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소방차량(Light Fire Attack Vehicle)을 자체 개발
 - 일부 차량에 Fire Gun(폼 방사)을 장착하여 1인이 화재 진압
 - 주택 및 인구밀집지역 일부에는 오토바이(Fire Bike)를 배치 운영
 -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상황실에서 재난규모와 출동 인력 등을 계산하는 직접 제어·통제하는 프로그램 운영

2 싱가포르 뉴워터

□ 방문 일 : 2014. 10. 24(금)

□ 내 용

○ 대표적 물 부족 국가인 싱가포르는 상수원으로 인근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원수를 사오거나(정수된 물은 말레이시아로 역수출) 빗물을 집수, 해수를 담수화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전체 하수발생량의 7%를 정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번에 방문한 뉴 워터 처리시설은 하수 등을 정수해 물을 공급하는 일종의 중수도시설로써 뉴워터를 통해 재생산된 물은 바로 마실 수 있을 만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일일 생산량은 4만2500톤의 재이용수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생산된 물은 공업용수로 70%, 상업지역 냉각용수로 20%를 공급하고 10% (약 2000톤)는 음용수 취수원지인 각 저수지로 이송되어 저수지수와 혼합되어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 싱가포르 뉴워터 정수장에는 해외 상수도 전문가 등을 포함해 일주일에 1,000명 이상이 방문하여 수돗물 정수 방법을 보고 배우고 있었다. 그만큼 정수장에는 홍보 및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는데 건물 안 대형 극장에서는 뉴워터 시스템을 압축해 설명하는 단편 영상이 상영을 되고 각 공정별로 안내원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정수장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 홍보관 내부에는 화려한 조명과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세련된 디자인, 게임 등을 즐기며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체험관은 이곳이 정수장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한다.

3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

□ 일 시 : 2014. 10. 24(금)

□ 내 용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청(URA) 전시관은 단순한 홍보 공간을 넘어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호흡하는 교류의 마당으로 자리 잡고 관광지로도 활용을 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전체와 주요도심지를 상세하게 표현한 엄청난 규모의 모형들은 싱가포르의 현재와 미래상이 어떠한 것인지 쉽게 알수있도록 표현해 뒀으며 싱가포르의 비전과 미래상에 대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게시되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도시계획가가 되어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기도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장치를 이용해 직접 재개발 사업을 해보기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정보를 얻고 가는 일방향 교류의 장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정참여가 이루어지는 쌍방향 교류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다.



4

말라카

□ 일 시 : 2014. 10. 25(토)

□ 내 용

말라카는 2008년에 도시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말라카해협, 말레이시아 반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동서 해양 교통의 요충지로서 동남아시아의 중요 항구도시이다.



14세기 수마트라섬에서 달아나는 왕자(파라메스바라)에 의해 건설된 이슬람 왕국으로, 인도와 중국에서 선박의 주요 무역항으로 개발되었다. 말라카 왕국의 번성으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1957년 말레이시아로 독립되었다.

주요시설로는 전통 말레이시아 건축 방식으로 지어져 당시 술탄 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으며 세인트 폴 언덕의 기슭에 복원된 잿빛 궁전으로 많은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인 말라카 술탄궁전과 포르투갈 선장이 마리아 예배당으로 세웠으며 스페인 선교사인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기적을 보였다고 전해지는 성바울 교회,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격전지였던 산티아고 요새, 15세기 초반에 지어진 말레이시아 최고의 정확를 기리기 위한 중국사원인 첩훤텡 사원 등이 있다.

5 아동복지시설(RACTAR)

□ 일 시 : 2014. 10. 26(일)

□ 내 용

락타는 셀랑고루주에서는 선구자적 아동복지시설로 4살부터 17세까지의 여자를 수용하고 있다. 17세까지 수용하는 이유는 18세가 되면 대학을 가기 때문이다. 락타에서는 대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봉기술, 쿠킹기술등 단기간 코스를 지원하고 있다.

수용인원은 48명이며 40명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8명은 재봉기술을 배우고 있다.

시설 운영은 개인과 법인 등의 기부금과 복지부의 지원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한 방에는 큰아이, 중간아이, 작은아이를 구성하여 4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는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돌볼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3번째 방문단체라고 하였다.



6**푸 트 라 자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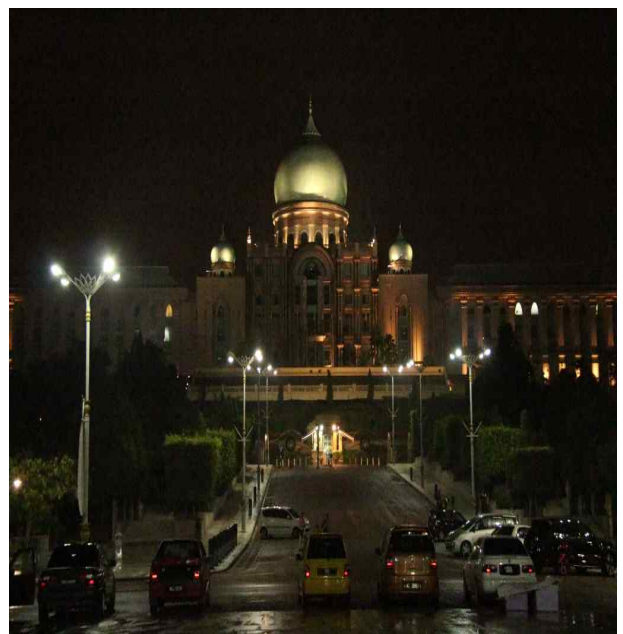
□ 일 시 : 2014. 10. 26(일)

□ 내 용

푸트라자야는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행정 수도로 개발중인 연방 직할구 가운데 하나로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남쪽으로 약 25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은 셀랑고르(Selangor)주에 속하였으나 1995년 10월 연방정부가 셀랑고르주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푸트라자야시를 설립하였고, 2001년 2월 포화상태에 달한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를 대신하여 연방정부의 행정수도로 삼기 위하여 연방직할령으로 지정되었다

주요시설로는 말레이시아 총리부 청사인 페르다나푸트라(Perdana Putra), 제1의 이슬람사원인 푸트라 모스크(Putra Mosque), 푸트라자야 독립광장, 연방 사법부 청사등이 있다.



IV. 연수 후기

1 세계문화유산 말라카에서 공주를 보다 행정복지위원회

【말라카의 역사】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국경을 넘자 온통 팜나무들로 빼곡히 들어찬 농장들이 이어졌다. 가이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팜유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에 이른다면서 팜유의 기능과 쓰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 50-100년된 건물들이 매장으로 변신하여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가이드의 친절한 설명에 귀 기울이면서도 나의 시선은 차창 밖의 풍경을 하나하나 꼼꼼히 훑어보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싱가포르의 화려했던 풍경과는 사뭇 대조적인 붉게 녹이 슨 양철지붕과 슬레이트 건물들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해짐을 느끼며 말라카로 향했다.

말라카(Malacca)는 1400년경 수마트라 추방자들이 세운 말라카왕

국으로 말레이시아의 최대 항구이자 관광도시이다. 말라카 해협은 지난 15-6세기를 풍미했던 해상실크로드의 동방거점이자 19세기 서방세력들이 동·서양을 오가면서 반드시 지나쳤던 곳이기도 하다.



▲ 1911년에 세워진 건물의 기념품 매장에는 손님이 넘쳐났다.

향료와 교역의 중심지 말라카는 이런 지리적 여건으로 1511년 포르투갈이 점령하여 130년을 통치하였고, 그다음으로 네덜란드와 영국 그리고 2차 대전 때 일본의 식민지까지 수백 년간 외세에 시달리고 수모를 당하는 비운의 근대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서구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식민통치를 받는 동안 시내

곳곳에는 시대와 나라마다 각기 다른 특징의 건축물과 대형 박물관에 다 채우지 못할 만큼의 유물 그리고 거리와 기념물에는 각각의 사연담은 이야기들을 남겨 놓았다.



▲ 100년쯤 되어보이는 건축물이 즐비한 말라카의 존커 스트리트

역사의 아니러니 일까? 말레이시아는 현대에 이르러 경제난을 거듭한 덕분에 여러 나라의 식민통치를 겪으면서 세워졌던 건물과 역사적인 조형물 그리고 유적지등이 비교적 고스란히 잘 보존되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잔존물들은 말라카를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반전의 행운을 가져다주었다.

【말라카의 관광】

말라카는 거리 곳곳마다 기독교회, 힌두교사원, 이슬람사원 그리고 불교와 도교 사원이 남아있고 말레이계, 인도계, 중국계 등의 다민족이 공존하는 마치 종교와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도시다.



▲ 기념품 매장으로 꾸며진 건물 내부에 말라카를 상징하는 기념품으로 가득차 있다.

말라카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다는 네덜란드광장은 멀리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건축물이 있다. 바로 크리스트 처치(Christ Church)인데 네덜란드가 통치하던 시기인 1753년에 건축된 교회다. 주변에는 통치시절 총독과 장관들의 공관으로 쓰였다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장 중앙에는 1904년 빅토리아 여왕에게 헌납할 목적으로 지어진 분수와 시계탑이 서있는데 섬세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들에게 멋진 포토 존을 제공하고 있다.

따가운 햇볕을 피해 네덜란드 광장 뒤편 언덕으로 오르니 지붕은 없고 벽체만 남아있는 자그마한 교회가 눈에 들어온다. 1521년 포르투갈 사람 두아르테 코엘료가 건축한 세인트 폴 교회로 그리스도 포교의 거점으로 유명했으나 가톨릭을 박해하던 영국과 네덜란드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 K-POP과 한국, 그리고 김현중을 사랑한다는 동남아의 아가씨들

교회 바로 앞에는 동방에 가톨릭을 전파한 프란시스 사비에르 (Francis Xavier)의 오른손목이 잘린 동상이 교회를 찾는 관광객들을 반겼고 안으로 들어서니 네덜란드 귀족들의 묘비만이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세인트 폴 언덕위에 서면 멀리 말라카 해협이 눈에 들어온다. 시선을 거두니 바다와 맞닿은 해안선 안쪽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주황색 기와의 주택들은 마치 지중해 연안의 풍경을 연상케 한다.

언덕을 내려오면서 만나는 산티아고 요새에는 젊은이들이 기타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요새는 포르투갈이 네덜란드의 침공을 대비해 만들었지만 결국 네덜란드에 밀려났고 요새도 크게 손상되어 형체만 남아 있다.



▲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며 이동수단인 트라이쇼

요새 앞의 대포 2문이 당시의 위용을 과시하는 듯 했지만 폐허로 남은 요새와 대비되어 씩씩한 역사의 한편을 보는듯하여 안타까웠다.

말라카의 또 다른 묘미는 거리 여행이다. 존커 스트리트나 히런 스트리트 등 골목길을 둘러보는 재미도 제법 쏠쏠하다. 군데군데 이슬람 사원과 중국 사찰 그리고 힌두교 사원이 보이고 수십 년에서 100여년쯤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매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마치 공주시의 강남거리와 골목길을 거닐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 말라카 리버의 강변을 따라 말라카만의 독특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승용차도 교행하기 쉽지 않을 정도의 골목길 양쪽으로 즐비한 가게에서는 별의별 물건들을 팔고 있었다. 기념품가게, 떡집, 시원한 음료를 파는 가게, 음식점등에는 각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넘쳐났다.

일행이 말라카에 도착하여 맨 처음에 간곳은 말라카 리버 크루즈 (Malacca River Cruise)다. 도심 속 강을 따라 배를 띄워 왕복 40

여분을 유람하며 강 양쪽으로 버라이어티하게 펼쳐지는 풍경들을 즐기는 관광코스다.

출발하자마자 일행들을 카메라와 휴대폰을 꺼내어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시시각각으로 눈앞에 다가오는 풍광들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우뚝 솟은 현대 건축물이 보이는가하면 대포를 거치한 성곽이 나타나고 바로 이어 유럽풍의 벽화가 그려진 카페와 음식점들이 줄지어 눈에 들어온다.

강변을 따라 화분에 담겨진形形色색의 꽃들이며 찻집 야외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크루즈를 즐기는 관광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금강에 배를 띄워 제민천을 타고 거슬러 오르는 기분 좋은 상상 속에 빠져보기도 했다.



▲ 세계 여러나라의 여행객들이 말라카 리버 크루즈를 즐기고 있다.

되짚어 내려오면서는 야간 조명으로 불 밝힌 이 멋진 경관을 사랑하는 사람과 밤늦도록 거니는 묘미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말라카를 떠나오면서 촉박한 일정 때문에 화려한 장식을 한 트라이 쇼를 타고 골목길을 누비지 못한 아쉬움이 가장 컸다.

【말라카와 공주】

이번 연수에서 필자는 무령왕릉과 공산성일대를 포함한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둔 공주지역의 관광 진흥 정책을 말라카를 통하여 한수 배워보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고 참여했다.

말라카에는 한해 약 1,0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한다고 한다. 현재의 우리 공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도시의 규모와 앞에서 열거하지 못한 관광지등 인프라 면에서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 크리스트 처치와 공간 그리고 빅토리아 분수대가 있는 네덜란드 광장 전경

하지만 말라카를 돌아보며 공주와는 매우 다르면서도 곳곳에서 닮은 점을 보았다. 공주에는 오히려 그곳에는 없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류(韓流)의 열풍도 있다.

일정 내내 만나고 마주치는 현지인이나 여행객들로부터 느껴지는 한류의 열풍은 매우 뜨거웠다. 세인트 폴 교회 언덕에서 만난 동

남아의 여성들에게서 K-POP의 열기를 감지했고 스스럼없이 한식 당에 들어서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한식(韓食)의 마력을 보았다.



▲ 현대와 근대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말라카 풍경

공주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대로에 고도(古都)의 이미지를 키우고 전통문화로 덧씌워 한류로 멋을 내고 맛깔스런 한식의 매력으로 담아낸다면 그들은 반드시 온다.

고도,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공주로...

2

관광을 관광산업으로 만드는 나라 싱가포르 산업건설위원회

싱가포르의 인구는 약 4백5십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서울면적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을 가진 항만도시국가이다.

이 국가의 GDP는 우리나라의 거의 두배인 5만불 가량으로 매우 잘 사는 나라이다.

금융산업, 항만산업, 서비스산업, 관광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이나 제조업 등의 생산성

은 부족하지만, 지리적 이점을 살려 정박료, 통관세,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는 등 최첨단 인프라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월 22일 저녁 7시30분.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숙소를 정하고, 23일부터 25일 아침 말레이시아 국경을 넘기 전까지 큰 이틀여의 시간동안을 싱가포르에서 머무르면서 일정을 보냈다.

처음 일정을 맞이한 곳은 소방재난갤러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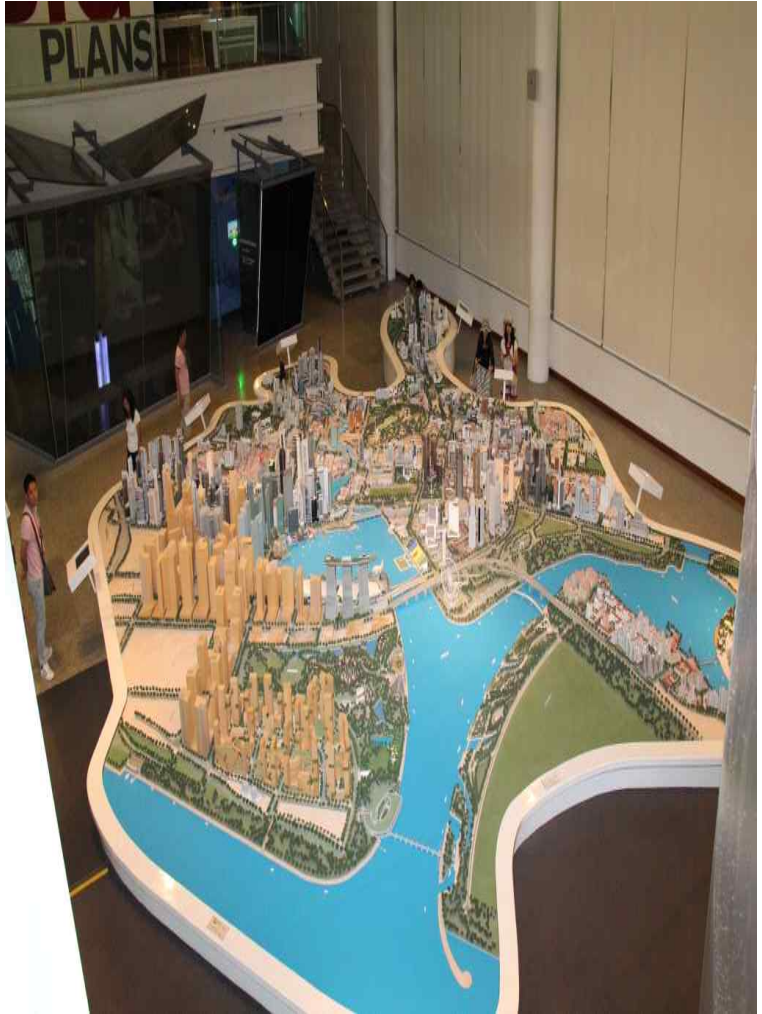
싱가포르 소방서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시해놓은 일종의 소방역사 박물관이다. 이곳 방문을 시작으로 새들의 공원을 만들어놓은 주룽새공원, 간척사업을 통해 섬을 확장하여 관광단지로 만든 센토사섬,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시개발청(URA)전시관, 지질이 화강암으로 되어있어서 지하수 대신 식수를 전면 수입해야하는 환경에 처해져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이 되어 수질관리나 물의 재생사업을 주관하는 우리나라의 수자원공사와 같은 뉴워터, 대표적인 수상공원인 머라이언팍 등을 방문하였다.

이틀 여 동안의 싱가포르에서 기관이나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30년 후까지 내다보는 도시계획으로 재난대응까지...】

첫 번째로는 싱가포르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정책이다.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청(URA)을 방문했을 때 그 곳에서는 싱가포르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30년 후의 도시의 모습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전시관이 있었다. 정부가 도시를 더욱 균형있고 발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미리 국토의 이용계획이나 건축형태까지도 기획해내고 있는 모습은 우리 공주 도심지의 모습이 일정부분의 허가조건만 갖추고는 무분별하게 건축되어서 전체의 모습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하여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특히 싱가포르의 도시건축물들은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부에서 특색 있고 가치 있는 건물들을 짓도록 유도해냄으로써 싱가포르의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도 깊이 따라 상·하수도, 전기시설등을 구분하여 매설하는 등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재난시 대응하고 있다고 하였다.



【관광을 관광산업으로 만드는 나라 싱가포르】

두 번째로는 관광에 대하여 철저하게 산업화하고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처음 싱가포르에서 방문했던 곳인 '소방재난 갤러리'는 방문객들에게 민방위 및 재난관련 교육훈련과 체험을 하게하는 취지로 소방청이 창설되어 지금까지의 민방위 및 소방관련 물품 등을 제작·전시하여 역사를 알려주는 전시관으로서 사실상 관광상품 이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 정도의 느낌이었다. 실제 역사도 1950년 정도이니까 역사성이 높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예전 소방청 건물을 그대로 복원하고 이곳에 체험할 수 있는 요소를 가미하여 관광상품화 하고 있었다. 입장료를 받고, 또한 입구와 하나로 된 출구에 각종 싱가포르의 관광상품 및 '소방재난갤러리'에 맞춘 기념품을 파는 매장을 지나오게 만들어 수입을 극대화 하고 있었다.

'소방재난갤러리'와 같이 우리가 다녔던 견학지나 관광지들은 거의 대부분 관광지의 동선에 최대한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노력이 있었고, 이점은 우리 공주시가 눈여겨 봐야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싱가포르와 공주】

공산성만 예를 들어도 싱가포르와의 확연한 비교가 이루어 질 것이다.

1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공산성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역사적으로 지닌 문화적 가치는 사실 싱가포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그 명성에 맞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공산성에 온 관광객들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입구로 들어가서 다시 주차장으로 나와서 공산성을 떠나는 간단한 동선

이다.

이 동선 안에서 관광객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어떠한 관광상품 매장이나 부스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유구한 역사의 현장! 공산성을 단지 왔다가 그냥 스쳐지나가는 정도의 관광인 것이다. 무령왕릉도 마찬가지로, 공주시 대부분의 관광지와 유적지들이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공주가 가진 관광의 도시, 역사의 도시라는 특수성을 살려 관광이 수입이 되고, 그 수입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더욱 극대화하는 생산적인 관광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를 인위적으로 만든 관광지이지만, 백제의 고도 공주는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가 박물관이며,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도시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공주가 지닌 자연적·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역의 발전과 연계하여 관광산업화 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이제는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임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